

교회 예배시 함께 고백하는 신앙고백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사도신경 가장 많이 알려진 신앙고백이자 한국 개신교회 예배시 주로 고백합니다.

니케아 신조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고자 합의한 신앙고백입니다.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정교회 등 세상의 모든 보편교회가 함께 고백합니다.

감리교교리적선언 한국 감리교회만의 신앙고백으로서 한국감리교회 최초의 문서화된 신앙고백입니다.

1. 오늘 주일은 성령강림 후 2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이 우리와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 여선교회 기도 모임 안내합니다. 6월 16일 금요일, 30일 금요일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양승
희 집사님께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3. 교회학교 예배를 맡아서 인도해 주신 담당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4. 누락자 및 변경 사항이 있어서 기도회 인도자 순서 다시 안내합니다.

6/11 홍기원 청년, 6/18 김태균 집사, 6/25 신미영 성도, 7/2 김주은 집사, 7/9 김수미 성도

7/16 양승희 집사, 7/23 정원철 집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5. 박소영 청년께서 결혼식을 알려주셨습니다. 7월 22일 시청에서, 29일 지방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6. 6월 생일자 : 17일 박소영 청년, 20일 양승희 집사, 21일 신주영 형제.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성서 일과 (성령강림 후 제3주)

제1말씀 : 창세기 18:1-15

제2말씀 : 로마서 5:1-8

시편교송 : 시편 100편

복음서 : 마태복음 9:35-10:8

안내

예배시간 및 교통편 안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임목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 등록 절차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파리중앙감리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
한감리회 중앙연회 유럽지방 소속입니다.

(Association Culturelle de L'Eglise Méthodiste
Coréenne De Paris)

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에 참석하신 후
새 신자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담임목사에게 면
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회의 교인으
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시간

주일공동예배 : 매 주일 오후 2시

예배 후 기도회 : 매 주일 예배 후 진행

오시는 길

17 bis, Rue Bayard 75008 Paris

메트로 1, 9호선 Franklin Roosevelt

메트로 1, 13호선 Champs-Élysées Clemenceau

교회 홈페이지 emcp-france.com/

네이버 카페 : 파리중앙교회

담임목사 박재현 연락처 06 58 41 28 08

e-mail: macarius@hanmail.net

예배 봉사 담당자

6월 18일 6월 25일

대표기도 : 정원철 집사 공동기도

제1말씀 봉독 : 김태균 집사 김주은 집사

제2말씀 봉독 : 이희주 청년 신미영 성도

복음서 봉독 : 집 레 자 집 레 자

6월 예배 안내 봉사자 : 양승희 집사

6월 다과 준비부서 : 사회봉사부

신앙독서

영적인 삶은 항상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어디서 활동하고 계시며 내가 어디로 인도받고 있는지 식별하는
주의력이 자라야 합니다. 영적 귀머거리와 소경의 상태를 떨치는 핵심 질문의 하나는 이것입
니다. “내 삶이나 공동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

영적인 삶을 마치 우리가 특정한 감정을 느끼고 특정한 생각을 하고 특정한 통찰을 얻을 때
시작되는 삶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적인 삶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
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
상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를 속에서 활동하신다는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깎아내고 조각하는 일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
니다. 하나님이 과연 활동하고 계시며, 그 영적인 삶에 내가 이미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영적인 삶은 반드시 평온함과 평안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또는 다른 사람
들과 함께함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멋진 기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깎아내는 과정은 아
픔입니다. 생전 가고 싶지 않았던 곳에 외로이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던 직업
으로 당신을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일들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편
하기는 하지만,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별로 신나지 않는 일들에 판에 박힌 듯이 순종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면 종종 하나
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늘 혼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
닙니다.

이런 실상을 일단 수용하면 우리는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
하고 계신다”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리를 인
정하면, 서서히 우리의 눈이 뜨이면서 비로소 이미 벌어진 일을 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일상사 속에 계시되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며, 우리의 삶은 순종의 한 형태가 됩
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란 우리가 피하고 싶을 수도 있는 곳들로 서서히 성령께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주일예배 순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 표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계십시오.

성령강림 후 제 2 주

✚ 집례 : 박재현 목사

개회의 예배

침묵기도 Temps de Silence et de Recueillement		다함께
개식사 Paroles d'accueil		집례자
✠ 입당송 Cantique	15 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함께
✠ 인사 Salutation de paix	✠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님, 우리와 온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소서.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Prière de Repentance et Annonce du Pardon de Dieu		다함께
✠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 (각자) 참회의 침묵 기도 (1분간 기도합니다)		
✠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3:17b-19a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 경배와 찬양 Cantique	29 장 성도여 다 함께	다함께
✠ 신앙고백 Confession de Foi	사도신경 (새번역)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 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 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송 Psaume du jour	시편 33:1-12 (구약 767쪽)	다함께

✚ 영광송 Spotane

1 장 반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십자가를 향하여 서십시오

예배를 위한 기도 Prière

공동기도

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들을 어여뵈 여기시어,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날, 우리가 모였습시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맘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의지와 인내를 허락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지난 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으며, 사람들과 살아가며 맺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지었으며, 모른 채로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께 고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낙망과 좌절 속에 머물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희망과 주를 향한 열망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높으신 뜻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가변이여기기 바쁜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통해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을 몸과 맘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시다.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걷어주시리라 믿습시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로 하늘나라의 기쁨과 행복에 동참하고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예배		
오늘의 말씀 Parole d'aujourd'hui	마가복음 10장 17-27절 (신약 68쪽)	김주는 집사 홍기원 청년
요절 (마가복음 10:22)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설교 Prédication	이 말씀 때문에	박재현 목사
찬송 Cantique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봉헌 및 기도 Prière d'offrande		집례자

폐회의 예배		
교회소식 Annonce		집례자
✚ 결단의 찬양 Cantique	459 장 1,3절 누가 주를 따라	다함께
✚ 결단의 선포 Proclamation	✚ 교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대하면서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다함께
✚ 축도 Bénédiction		집례자